

사설

# 태양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안고 자주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가자

민족의 존엄이 우주에 닿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이 나라 강산 그 어디에나 뜨겁게 굽이치는 속에 뜻깊은 태양절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꽃피는 4월 겨레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력사의 그날로부터 세월의 년륜은 어느덧 백열년을 아로새겼지만 해가 갈수록 더욱 빛을 뿌리는것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민족과 인류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이고 더욱 간절해지는것이 절세위인에 대한 이 나라 인민들과 우리 겨레의 다함없는 그리움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민족의 대경사였다.

돌이켜보면 부패무능한 봉건 통치배들의 사대와 당파싸움,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쇠약해져서 쇠약해진 조선이 20세기 초 일제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긴것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더없는 수치이고 불행이었다.

겨레의 운명이 칠성관에 놓이고 삼천리강토에 암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바로 그때 만경대에서 누리를 밝히는 태양이 솟아오른것은 우리 민족이 받아안은 크나큰 행운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억눌리고 신음하는 조선인민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며 일찍부터 나라찾을 큰 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무장한 강도 일제는 무장으로 때려부셔야 한다는 독립의 탁월한 방략을 제시하시고 20성상의 간고한 항일대전을 승리로 조직명도하시였다.

백두산 줄기줄기와 압록강 굽이굽이, 만주벌판에 항일선렬들의 피어린 자욱이 오늘도 력력하고 암흑의 삼천리에 민족재생의 희망을 주며 그날에 메아리치던 항일의 총성이 지금도 들려오는듯싶다.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일제의 포악무도한 악정과 민족말살책동으로 꺼져가던 겨레의 운명을 기적적으로 소생시켜 주신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우리 국가와 민족앞에 쌓으신 영구불멸할 크나큰 업적이다.

이 땅우에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 자위로 위용떨치는 나라,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가 일떠서게 된것도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여 겨레가 받아안은 남다른 행운이고 복이다.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펼치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여 이 땅우에서는 인민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공화국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사회주의국가로, 참다운 인민의 세상으로 온 행성에 빛을 뿌리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외세에



의해 우리 민족이 겪는 분렬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민족의 어버이,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자이다.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이 계속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시종일관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운동을 주동적으로 이끌어나가시였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범죄적인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부조선 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게 하시분도 수령님이시고 우리 나라에서 하나의 조선이나 《두개 조선》이나 하는 두 조선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날카롭게 벌어졌던 시기에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과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불려일으키신분도 수령님이시였으며 격페상태에 있던 북과 남 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북남사이에 공동성명과 합의를 체결하게 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여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

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의 근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3대헌장이이다.

민족자주정신과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가 구현된 조국통일3대헌장이 있어 우리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속망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거족적인 자주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것이다.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고 더욱 강화

하시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으신 또 하나의 커다란 업적으로 된다.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대단결의 기초로 삼으시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일에 국의 길에 나서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한때 길을 잘못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민족을 위한 통일애국의 길에 들어설수 있을것도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품이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위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민족대

단결의 사상과 리념, 그이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 현명한 령도에 의해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 발전되어 북과 남, 해외에서 각 계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범민족대회가 열리고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탄생하게 되었다.

진정 어버이수령님은 우리 겨레가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불세출의 위인이시고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치신 평생의 로고와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유훈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완수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는것은 전체 조선민족성원들의 숭고한 도덕리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는 여기에 자주통일과 우리 민족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

은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겨레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우리 겨레는 통일의 길에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이고 정세가 어떻게 변한다 해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바치신 자주통일위업은 또 한분의 결출한 위인을 모시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사상과 령도, 품도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절세의 위인, 조국통일의 구성자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뜻을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를 받드는 길에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을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방침으로 제시하신데 이어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련이어 펼치시여 조국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현시기 북남관계악화의 원인과 그 해결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여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확고한 신심과 의지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것이아말로 우리 겨레가 받아안은 또 하나의 최대의 영광이고 행운중의 행운이다.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양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찬란한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삼천리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애국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게 될것이다.